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19년 유럽 물류기업 시가총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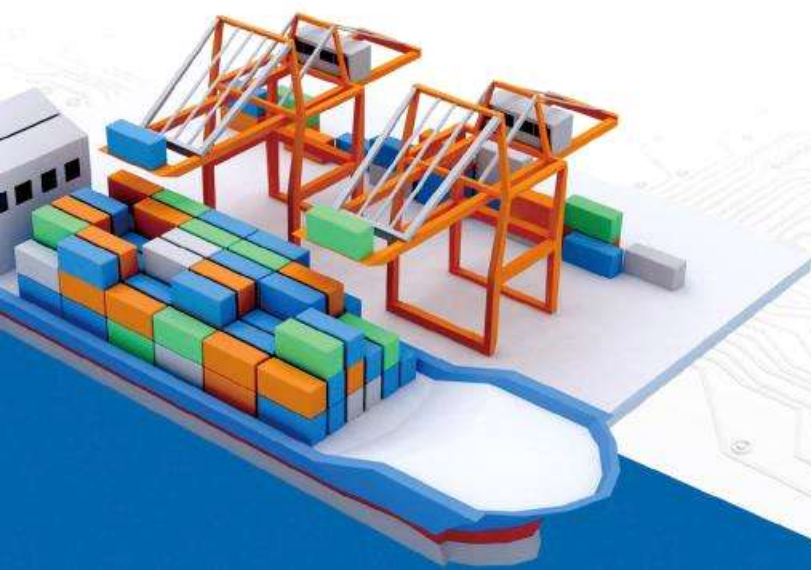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호주 뉴캐슬항, 항만부문 에코인증 취득
2. 알파라이너, 2020년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지속 증가 전망
3. Maersk, 인도에서 UAE로 신선식품 운송 서비스 개시
4. 무역 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 수입물량 감소 지속 예상

명사 스피치

“DHL은 2050년 온난화, 국가 간 갈등 고조 등 다가올 미래 사회를 예측해 이에 따른 새로운 물류전략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류산업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DHL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산이다.”

이보현 DHL Supply Chain Korea 이사
(2020. 1. 20. /물류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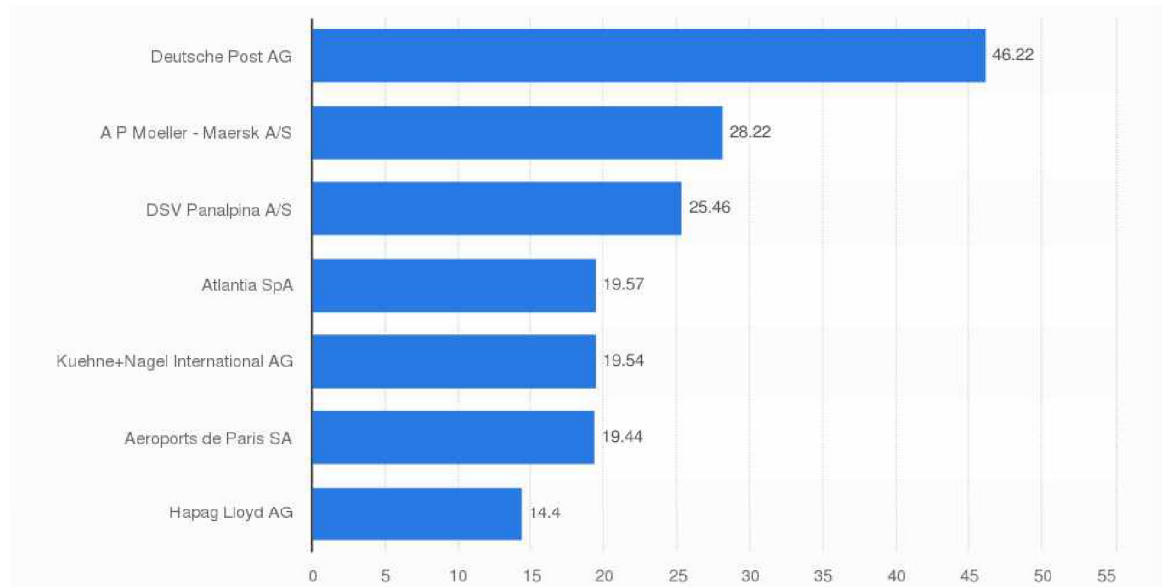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19년 유럽 물류기업 시가총액 순위

2019년 유럽 물류기업 시가총액 순위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https://statista.com>

- 독일 Deutsche Post AG는 물류 부문의 모든 유럽 기업 중에서 최대 시가 총액을 기록하였으며, 특송 전문 계열 기업인 DHL을 통해 39%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구현
- 2019년 독일 우편 및 택배 회사의 가치는 460억 2천만 달러에 달함
- A.P. Moeller-Maersk A/S(덴마크), DSV Panalpina A/S(스위스), Atlantia SpA(이탈리아), Kuehne+Nagel International AG(스위스) 등이 순위에 오름
- 참고자료 : <https://statista.com>, "Leading industrial transportation companies by market capitalization in Europe in 2019"(검색일: 2020.1.17.)

이지원 연구원

051-797-4799, jiwon@kmi.re.kr



호주 뉴캐슬항, 항만부문 에코인증 취득

- 뉴캐슬항은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에서 세계 환경 및 지속가능성의 표준인 EcoPorts로부터 항만 분야 인증을 받은 최초의 항만이 됨
 - 1997년에 개발된 EcoPorts는 항만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항만 분야의 유일한 환경관리 표준임
 - EcoPorts는 Lloyd's Register의 엄격한 독립적 테스트를 통해 항만의 환경관리 시스템(PERS: Port Environmental Review System) 하에서 뉴캐슬항을 인증함
 - 이로써 뉴캐슬항은 EcoPorts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 세계 115개 항만 중 하나가 됨
- 뉴캐슬항은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의 여러 항만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EcoPorts 표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최첨단 크레인 및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신형 하역장비 구입을 위해 3,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벌크터미널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을 개선하고 연료, 전력 및 물 소비량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뉴캐슬항의 환경부문 책임자인 재키 스피테리(Jackie Spiteri)는 “뉴캐슬항이 글로벌 환경 표준에 대한 EcoPorts 인증을 획득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 지속가능성이 항만 사업 전략의 핵심인 만큼 무역의 다각화와 공급망의 효율화, 안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시항구로서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hellenicshippingnews.com, 2020.1.20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알파라이너, 2020년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지속 증가 전망

- 알파라이너(Alphaliner), 2020년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3.5% 증가 전망
 - 해운전문 분석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컨테이너 선대는 TEU 환산 2,323만 TEU였으며 2020년은 전년 대비 3.5% 증가해 2,405만 TEU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선대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조 선박에 의한 것으로 2020년 중 인도될 규모는 TEU 환산 약 1,140만 TEU 규모로 전망됨

하역중인 컨테이너선과 항구



자료 : <https://shippingwatch.com/secure/carriers/Container/article11878112.ece>(검색일: 2020.1.21.)

- 2020년 하반기까지 스크러버 장착·개조된 선박의 시장 재진입 및 신조 선박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선대 5% 이상 증가 전망
 - IMO 2020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낡고 비효율적인 선박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9년 20.7만 TEU에서 2020년 30만 TEU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스크러버를 장착·개조된 선박(현재 신조 1,140만 TEU의 75% 차지)이 모두 시장으로 재진입하고 신조 선박까지 인도가 완료되어 운항된다면 하반기에는 선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해운사들은 시장의 선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 한편, MSC와 Maersk는 현재 가장 많은 선박을 개조중이며, HMM, CMA CGM 및 Evergreen은 신조 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s://www.seatrade-maritime.com/> 2020.1.21.

김성아 전문연구원

051-797-4792, ksa@kmi.re.kr



Maersk, 인도에서 UAE로 신선식품 운송 서비스 개시

- Maersk사는 인도에서 생산된 신선한 풋고추를 바라나시항에서 UAE의 제벨 알리 항까지 9일 이내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 동 서비스는 인도 상무부의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 중 육·해상 교역 기회 확충 차원에서 산하 기관인 농업수출진흥청(APEDA)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됨
 - APEDA는 바라나시 지역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동부 지역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산물 수출 허브, 코디네이션 등 종합적인 물류 시설 구축에 착수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의 농산물 교역 판로 개척 및 end-to-end 콜드체인 물류 솔루션 구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Maersk사는 향후 바라나시 지역의 교역 수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스티브 펠더 Maersk 남아시아 지역 경영 이사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농수축산물 시장의 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함
 - 이는 기후·지리적 여건에 따른 것임
 - 바라나시 지역은 현재 인도 정부가 수출무역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운송을 위해 온도조절 기능이 탑재된 컨테이너를 투입
 - 인도 바라나시에서 UAE의 제벨 알리 항까지 풋고추 운송을 위해 원격 컨테이너 관리기술(RCM, Remote Container Management)을 이용, 화물의 온도 조절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였음
 - Maersk사와 인도 정부는 이번 운송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철도 등을 이용한 운송 경로 추가, 풋고추 이외에 망고, 구아바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 취급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www.ti-insight.com 2020.1.16.

김광모 연구원

051-797-4616, momo09010@kmi.re.kr



무역 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 수입물량 감소 지속 예상

-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아시아 지역 수입 컨테이너 화물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의 각종 무역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지역 수입 물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 특히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 미국의 중국수입 물량은 약 10% 감소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물류소싱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중 무역분쟁으로 다수의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들은 물류소싱의 일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였음
 - 글로벌 해상무역 컨설팅 기관인 'Global Port Tracker'는 2020년 1~2월 미국의 아시아 지역 역내 수입화물은 2019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인해 4분기까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실제, IHS Markit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19년 미국의 중국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2018년 약 1,170만 TEU에서 9.8% 감소한 1,050만 TEU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미국의 아시아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출처: [https://www.IHS Markit.com](https://www.IHSMarkit.com)

- 글로벌 항만과 운송업자들은 태평양 해상무역 거점인 아시아와 중국 지역에서의 수입화물 성장률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으며, 실제 2001년 이후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 시점까지 아시아 지역 수입은 약 14.2%, 중국 지역 수입은 약 12.4%가 감소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미국이 중국에 단계적으로 부과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최근 미·중간 “Phase One” 등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수입 물량에 대한 약 3,700억 달러의 관세가 남아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중국수입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음

■ 참고자료 : www.joc.com, 2020.01.21.

이주원 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